

구례군, ‘행복체감 100℃ 함께 달려요 보건복지’ 사업 추진



“65세 이상 어르신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

광주시, 폐렴구균 예방접종 민간 병·의원으로 확대 시행

광주시는 22일부터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민간 병·의원(지정 의료기관)까지 확대 시행한다.

그동안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시행했지만 코로나19로 보건소의 예방접종 업무가 잠정 중단됨에 따라 민간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시행할 예정이다.

지난 2013년 5월부터 전국 보건소에서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올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접종률이 전년 동기간 대비 1/4 수준으로 감소함에 따라 시행한 조치다.

65세 이상 어르신 중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어르신들은 6월 2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소지에 관계없이 민간 병·의원(지정 의료기관)에서 무료접종이 가능하다.

예방접종이 가능한 민간 병·의원(지정 의료기관)은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 (<https://nip.cdc.go.kr>),

보건·복지 함께 제공해 혈압·당뇨 등 기초검사 실시·사후 관리

통합 보건교육 중점 실시해 주민 스스로 건강생활 실천·질병 예방

구례군은 ‘보건과 복지가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건강 구례’라는 비전을 가지고 건강·복지 틈새가구 및 취약계층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행복체감 100℃ 함께 달려요! 보건복지’ 사업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기존의 ‘행복체감 100℃ 복지는 달린다’ 사업과 연계하여 보건과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한

다.

취약계층의 건강을 위해 혈압·당뇨 등 기초검사를 실시하고 사후관리하며 치매예방교육부터 신체운동 교육, 대사증후군 예방관리, 금연 및 절주관리, 식생활 교육, 재활운동 교육 등 통합적인 보건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여 주민들이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하고 질병을 예방하여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돋고자

한다.

구례군 관계자는 “‘행복체감 100℃ 함께 달려요! 보건복지’ 사업으로 구례군민의 건강생활실천이 습관화되어 건강수명을 늘리는데 기여하고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통합 돌봄을 실시함으로 지역주민의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구례=박진호 기자



광양중앙도서관, 장애인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맞춤형 동화구연교실·독서 통해 문해력 향상·정서적 안정 도와

코로나19로 막힌 근로지원인 양성, 화상교육으로 재개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종란, 이하 ‘공단’)은 근로지원인 사업 수행기관에 온라인 화상시스템을 무상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지원은 코로나19 감염이 장기화됨에 따라 근로지원인 양성교육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수행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그간 근로지원인 사업수행기관들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대면교육이 불가능해 2020년도 양성교육 운영수행 기관 29곳 중 28개 기관이 상반기 내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번 지원은 교육생들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실시간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시스템을 지원하는 것으로 수행기관들의 간단한 신청절차를 거치면 통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공단은 코로나19에 대응하고자 주요 사업별로 장애인 및 장애인고용 사업주 지원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해서 시행할 예정이다.

광양중앙도서관은 장애인종합복지관과 연계해 독서를 통한 장애인의 문해력 향상과 정서적 안정을 돋기 위해 발달장애인 10명을 대상으로 2020년 장애인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국립장애인도서관의 2020년 장애인 독서문화프로그램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이달부터 9월까지 총 12회에 걸쳐 맞춤형 동화구연교실이 운영된다.

도서관에서 회원증 만들기와 도서

대출이용 체험, 미술관에서 작품 관람 등 색다른 하루를 만드는 독서문화체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기섭 도서관운영과장은 “이번 프로그램이 지역 내 독서소외계층인 장애인의 독서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사회와 소통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며, “앞으로 차별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맞춤형 독서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내륙의 바다 ‘장성호’

수변 데크길(왼쪽)

옐로우출렁다리

황금빛출렁다리

수변 데크길(오른쪽)

장성군